

신학기 학교방역 '혼란스러운' 분위기 감지

전국 1만1794개 초중고 3월2일 개학 예정 실내 마스크, 발열검사...학교가 '수위 조절' 학교별 방역지침 달라...교사들 "민원 걱정" "방역완화 과정 속 자연스러운 혼란" 의견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오는 3월2일 개학을 준비 중인 학교 현장에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일부 시설공사 중인 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1만1794개 초중고가 오는 3월2일 개학을 예정이다.

이번 개학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간 유지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 첫 학기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완화된 방역지침을 담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 착용'으로 완화했고, 등교 때마다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했다. 단,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이 발열검사를 운영하거나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도 비말 생성이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이 착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학교가 판단해 방역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인데, 이는 학교마다 방역지침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

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며 "급식실 칸막이도 일정 기간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장은 "밥 먹는 시간은 물론이고 가능한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대에도 마스크를 벗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급식실 칸막이는 다 치웠다"고 말했다.

수업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에 차이를 둔 경우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장은 "교내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결정했다"며 "다만 음악·체육이어도 이론 수업이면 교사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장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주면 학교가 불편 없이 따를 것 같은데, 방역 같은 분야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역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고, 불명확한 지침에 따른 학부모 민원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학교는 아이들 밀집도가 높아 '아직은 마스크를 써야 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는 반면, '정부에서 지침을 완화했는데 왜 학교에서 간섭하



냐는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하는 학교들도 있는 등 현장은 고민이 있다"며 "고민해서 만든 학교 방역지침을 믿고 따라주시길 학부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북의 초등학교 교사 박모(35)씨는 "지금 지침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는 수준으로 교내 감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민원 처리는 온전히 학교 몫"이라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교사들이 현재 지침에 불만을 많지만 그럴 때 학교장에게 건의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침의 혼란 때문에 개학하면 학부모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권모(53)씨는 "초등학교 1학년은 아이들이 교사의 입 모양이나 표정을 보고 감정이나 한글 발음 등을 익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마스크를 벗을 필요가 있다"며 "1학년 담임끼리는

어떻게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학교 전체의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이 같은 혼란이 강화된 방역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일선 학교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원하겠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학교장도 관리자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지침을 일괄 수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또 다른 혼란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학기 방역지침은 현장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안내했고, 탄력성을 부여한 부분이 현장에 잘 인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특별히 강조했다"며 "점차 감염 상황이 나아져 방역지침이 추가로 완화되면 학교 지침도 당연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 없이 27년간 진료한 60대 '가짜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 '감독 소홀' 인정한 5명 병원장에 벌금 500만~2000만원 구형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7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의료재단과 병원에 근무할 목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동기 의사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는 등 방식으로 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의사 사가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의

료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대리인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함께 나왔다.

병원장 5명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나머지 의료재단과 병원장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병원장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

를 만들어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 중 공소사실이 남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같은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미등록 고용 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양 기관이 협업해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한 상태다.



국도 최남단 마라도 찾은 관광객들

맑은 날씨를 보이는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섬 경치를 느끼며 걸어가고 있다.

영암 외국인 숙소 화재 태국인 1명 2도 화상

지난 27일 오전 3시 36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2층 규모 외국인 숙소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2층에 살던 태국 국적 A(64·여)씨가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2층 조립식 패널과 1층 거주시설 일부도 타고 그을렸다.

같은 층에 살던 외국인 4명도 불길을 피해 대피했다.

집주인 B(68)씨는 외국인들에게 숙소 용도로 2층을 임대 내준 곳으로 알려졌다. 1층은 B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층을 잇는 계단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전남선관위, '한눈에 속속! 그림 차트' 활용 순회 선거정보 브리핑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실버권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한눈에 속속! 그림 차트'를 활용하여 각 시군 경로당, 마을회관 등 찾아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주말 섬마을 응급환자 2명 잇따라 긴급이송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간, 도서지역 응급환자 2명을 긴급이송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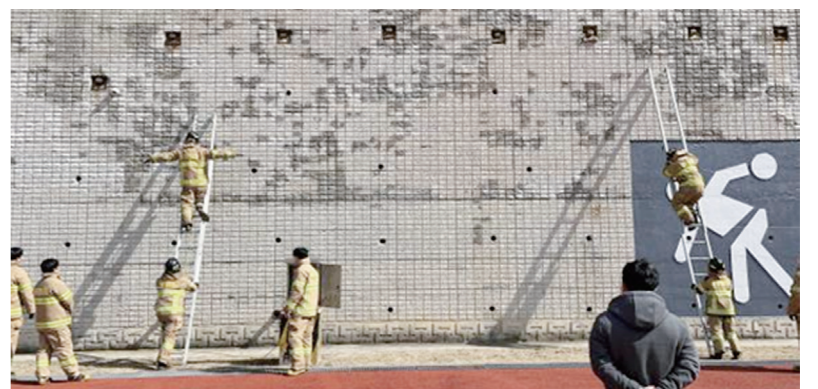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관내 산업단지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담양소방서는 관내 산업단지에 대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소방,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여수소방서는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주남부소방,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 소방안전 캠페인

광주 남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에서 소방안전 캠페인 및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전남지방방무청-목포동신대한방병원, 업무 협약 체결

광주전남지방방무청은 지난 24일 목포시 소재 목포동신대학교한방병원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